

## 알뜰교통카드로 K-패스 혜택 받으세요

- 5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20~53% 환급하는 K-패스 사업 시행
-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하여 기존 카드로 K-패스 혜택 적용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강희업)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-패스 출시에 앞서,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-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\*이다.

\* 3.4일부터 진행하였으며, 3.21(목) 기준 약 118만명 중 22.5만명 전환 완료

○ K-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(시내·마을버스, 지하철, 광역버스, GTX 대상)을 이용할 경우, 지출금액의 일정비율(일반인 20%, 청년층 30%, 저소득층 53%)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.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\*한 것이다.

\* [기존 : 알뜰교통카드] 도보·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(출발도착 기록 필요)  
[개선 : K-패스]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20~53% 환급(출발도착 기록 불필요)

□ K-패스를 이용하려면 K-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.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, 간단한 회원전환 절차\*만 거쳐도 K-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\* 알뜰교통카드 회원정보의 이관, K-패스 이용약관 등에 대한 이용자 동의 필수

○ 회원전환은 쉽고 간단하다. 모바일 어플리케이션(앱) 또는 누리집\*에서 할 수 있다. 현재 사용 중인 ①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 입력, ②주소지 인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, ③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.(참고자료 첨부)

\* (앱) 알뜰교통카드(~4.30까지 이용가능) / (누리집) www.alcard.kr(~6.30까지 이용가능)

○ 4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-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-패스 혜택을 적용받는다. 전환을 미리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K-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.\*

\* 회원 전환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6.30까지 가능

- 국토부는 K-패스 BI(브랜드이미지)와 홈페이지·앱 디자인(안)도 공개하였다. K-패스 BI는 이용자 설문(1.29~30, 1.6만명) 등을 거쳐 선정했다. 홈페이지·앱 디자인(안)은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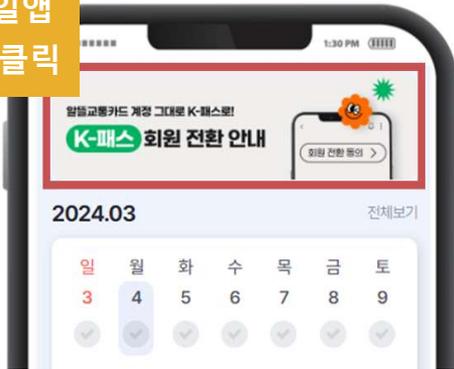
- 특히, K-패스 BI는 버스, 지하철과 교통카드를 형상화하는 사각형 이미지 안에 사업 명칭을 표기하였다. “K”와 “스”의 끝을 연결함으로써 전국 단위 사업으로서 전국 지자체와의 협력 의미도 강조하였다.
-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“5월 1일 K-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·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, 시스템·앱·홈페이지를 개발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 중”이라고 밝혔다.
- 또한, “알뜰교통카드 이용자분들이 편하게 K-패스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카드사와 함께 알뜰교통카드→K-패스 회원 전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”이며,
- K-패스 신규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활용하여 홍보해 나갈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담당 부서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	책임자	과 장	백승록 (044-201-5080)
		담당자	사무관	박태현 (044-201-5082)

## 참고

## K-패스 회원전환 방법(알뜰교통카드 앱·누리집에서 안내 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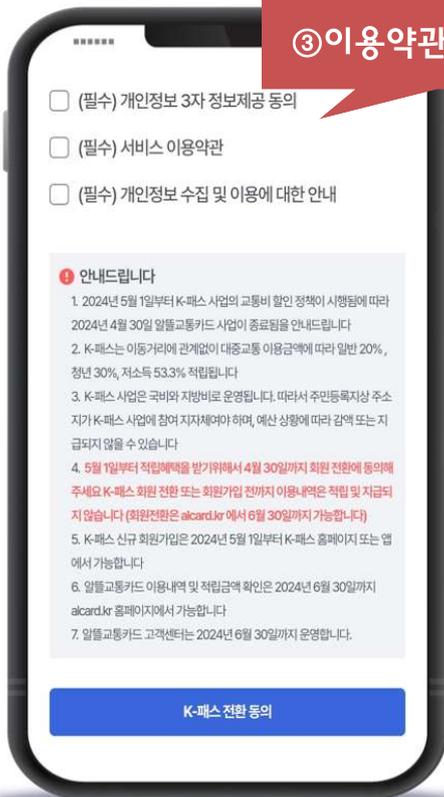
모바일앱  
배너 클릭



홈페이지  
배너 클릭



③ 이용약관 동의(✓)



(앱) '알뜰교통카드' (~4.30까지 이용 가능), (누리집) www.alcard.kr(~6.30까지 이용가능)